

나주 혁신도시 3곳 '기타공공기관' 전환...경영 자율성 강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상향...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130→88개로 42곳 변경...사학연금·콘텐츠진흥원·농기평 포함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하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3개 기관이 기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이들 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으며 경영·인사 자율성이 강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은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돼왔다.

이번 결정은 정원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을 키우는 데 취지가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의 평가

를 받게 된다.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목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정원이 300명 미만(2021년 말 기준)인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기금관리형)과 한국콘텐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위탁집행형) 등 3곳이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원 300명 이상인 나주 혁신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현행	개편
정원	50명 → 300명
총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 30억원

기타공공기관 전환시 경영 관리주체 주무 부처로 변경	
개별법, 정관에 따라 자체임원 선임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제외
총 130개	기타공공기관 42 (32%)
준정부기관 94	공기업 88
공기업 3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비중 축소 25 → 15점	·재무성과 배점 10점 → 20점
·보수·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 확대	·공공기관 작성 기관별 혁신계획 점검에 평가 반영(가점 5점 부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 2,000억원, 1,000억원 이상	·해외사업 특성 반영하여 수익성 평가비중 상향, 국제금융기구 등 검증결과 활용
·신규 투자사업 책임성 확보방안 병행 추진	→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결과 이행실적 점검, 반영

시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등 3곳이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5개 기관이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

(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빛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9월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세부 배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배점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부터 적용된다.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 총사

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 때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지급체계는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한전, 전력설비 원격감시 서비스 개발

LS일렉트릭과 협력 협약 과부하 예측 통해 정전 예방

최근 기상 이변과 건조기, 스타일러 등 새로운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정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전력이 전력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과부하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LS일렉트릭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전력설비 상태 원격감시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고객의 전력 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과부하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설비를 진단하는 전력 설비 원격감시 디지털 신서비스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설비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술 검증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자사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LS일렉트릭의 스마트 전력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 역량을 결합해 정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송호승(왼쪽) 한전 디지털변환처장과 황원일 LS일렉트릭 전력계통사업부 상무.

현재 '파워체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력사용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은 LS일렉트릭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전력설비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정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송호승 한전 디지털변환처장은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LS일렉트릭의 스마트 에너지 기술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겠다"며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개성만점 친환경 신발 만나보세요"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23일 본관 1층에 마련된 '슈콤마보나·노도니트 콜라보' 임시매장에서 페페트빙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이 매장에서는 10% 할인과 양말·우산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혁신도시 기관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농어촌공사·aT 성금 전달 등

나주 혁신도시 농업관련 기관들이 집중호우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과 25일 직원들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에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펼친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 직원 100여 명이 이날 봉사에 참여한다.

공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집중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지역 농수로 토사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 등에 일손을 보태기로 했다.

또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을 기부한다.

강경학 공사 농지관리사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앞서 수도권 등 중부 지역 호우 피해 구호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지역의 복구와 이웃들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준진 사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